

[ 오피니언 ]

# 데스크시각

김우성



정치인의 인기는 참으로 덧없는 것 같다.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00여일만에 20% 아래(SBS 조사)로 떨어지더니 대통령 스스로도 울고 싶은 심정일 겐다.

조짐은 인수위시절부터 보였다. 인수위가 본분을 잊고 내각 행세를 하면서 검증도 안된 정책을 남발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고소영·강부자'로 꾸며 대다수 국민들과 거리가 먼 '1%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현실감 떨어진 정책과 발언이 이어졌고, 미국산 쇠고기 파동까지 겹쳐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르렀다.

## 참모의 에스, 먹기좋은 독약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국민 소통이 안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한마디로 '에스맨(yes man)' 참모, 성장 조급증 대통령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과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하고,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던 터라 성과주의 강박감

에 '성장 조급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자를 만든 참모들은 '노맨(no man)' 역할을 주저하지 않았다. 루즈벨트가 미국을 대공황에서 건져내

# '에스맨' 참모 '조급증'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하우라는 훌륭한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우는 보스의 잘못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의견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결국 주위의 여론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자양분이 돼 루즈벨트와 국민간 소통을 원활하게 했다. 이 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참모들이 없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미 대통령 별장)에 간 사실을 피잡은 것은 이런 실상의 반증이다. "참모들이 잘못했어요.

제가 참모라면 대통령한테 캠프 데이비드 가시면 안됩니다. 곧 그만둘 사람인데 왜 거길 겁니까"라고 했을 거라든가. 이 뿐만이 아니다. 송래문 화제 때 이 대통령의 국민 성금 복원 발언, 청와대 수석의 특정지역 출신 위주 발탁 등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설플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성장 조급증'도 문제다. '7.4·7(7% 성장·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등 경제대통령을 표방해 당선된 강박감 때문일다. 성장률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칠까 염려스럽다. 지금 당장의 성과를 내려고 은갖 정책수단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감지된다. 국가균형발전의 뜰을 깨뜨리고 강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며, 추경예산 편성, 복지예산 축소 방침 등 부지기수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 그래서 지방자치체가 만병통치약인 양 이를 갈망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 뒷받침없이 제도만 도입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참여정부는 특별법이라는 장치까지 만들어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 지방정책 후퇴 말아야

그런데 새 정부는 이를 전면 수정하고 있다. 지방의 거센 반발에도 끄떡하지 않고 전진에 또 전진이다. 당장의 효과를 내기 위해 서울을 키우고 지방을 죽였을 때 장차 국가 백년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에 지역감정이 되살아나 그나마 기초가 닦이고 있는 국민통합은 깨지고 만다. 이를 복원시키려면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김용갑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은 기업 CEO처럼 하루아침에 된 게 똑똑 해지우겠다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CEO 대통령의 한계를 지적했겠는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후유증을 야기할 당장의 마약요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대통령은 '참모의 에스'는 먹기좋은 독약'이요 지방 없는 서울도, 국가 미래도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 시설

# 물가 치솟는데 소득은 줄어든 우리 경제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국민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5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까지 3%대를 유지했으나 4월 4.1%, 5월 4.9% 등 갈수록 가파르다. 상승률 4.9%는 2001년 6월 5.0% 이후 6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실상가상이다. 정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52개 품목의 물가는 6.6%까지 뛰었다. 특히 광주·전남의 장바구니 물가는 7%대를 기록했다. 시장장보기가 겁난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반면 국민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을 1·4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이 전 분기에 비해 1.2% 감소했다. 지난해 플러스를 보인 증가율이 줄어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선데다 감소폭은 5년만에 가장 높다. GNI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국민의 실제 소득은 감소했다는 의미다. 서민들이 물가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실질소득마저 떨어지면 생활이 조물질 수밖에 없고 경기도 살아갈 수 없다. 인상 대기 중인 공공요금과 전기료, 버스 및 택시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면 물가대란은 피할 수 없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가 성장에서 물가 안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은 다행이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물가가 치솟으면 국민의 실질소득은 높아질 수 없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환율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다.

# '투자협약' 중 실제투자 절반에 그쳐서야

최근 5년간 전남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실제로 투자한 기업은 절반에 그쳤다. 전남도가 지난 5년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374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이 자본을 투입한 것은 196건(52.4%)에 불과했다. 나머지 178건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것이다.

전남지역의 투자실행률이 낮은 것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등 투자환경의 변화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기업 환경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 개 우리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의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투자실행률을 낮추고 있다. 기업환경이 수도권보다 열악한 만큼 사후관리도 치밀해야 한다. 투자협약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투자 걸림돌이 무엇인지 투자결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악해 해결해주는 윈-윈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전남도는 7월부터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한다.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고객중심의 투자기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후관리시스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전담 부서와 직원을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성과가 거두지 못했다. 이는 담당 부서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이나 인사 때마다 기업유치 부서와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 체에서 기업유치는 어렵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이 모인다. 기업유치가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것이다. 전남도의 투자유치 사후관리시스템이 실제 기업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無 等 鼓

마시는 물은 사용가치가 높음에도 가격이 매우 낮고 다이아몬드는 쓸데가 없는데도 왜 값이 비쌀까.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재화의 가치 차이가 빛어지는데 대해 이렇게 머리를 싸매야만 했다. 연구 끝에 그는 재화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달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가치의 역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로 부른다.

그리고 그가 죽은지 정확히 100년 후인 1890년,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저서 '경제학 원론'에서 가격이 재화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론이 탄생, 정립된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공급이 늘고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은 그의 이론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

가 존재했다. 부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고가 사치품, 한국인들이 일컫는 명품들이 바로 그 예외에 속했다.

마셜과 비슷한 시기 미국의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강사로 일하던 토스타인 베달린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비싼수족 잘 팔리고 값이 내리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베달린 효과'를 정리해 내놓았다. 고가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우월적 정체를 표현하고 타인과 차별성을 갖고자하는 저급한 사치본성을 짚어냈다.

최근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명 브랜드 청바지, 운동화 등의 국내 판매가가 7배에 달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나친 폭리가 아닐 수 없지만 문제는 그걸 사는 부류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사람들이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 명품을 구입하며 만족하는 현상을 '속물효과'라 한다. 명품족들은 경제학에서 자신들을 속물취급하고 있는지나 아는지 모르겠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 속물효과



## 기 고

박윤모



예로부터 광주는 호남의 중심지로써 그 지위를 굳혀왔다. 특히 예술에 있어서 한국화의 허백련, 판소리의 임방울, 서정시인 박용철에 이르기까지 광주는 남도의 흥과 정기를 뽐내며 살아낸 예향의 도시였다. 이후 경제적인 성장과 궤를 같이하면 서도 광주는 그 역사에 걸맞은 인권의 도시, 빛의 도시, 관광도시, 맛과 멋이 있는 도시 등 여러 별칭을 얻게 됐다. 지난 2004년 3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유산도시 조성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박유니스다. 이는 광주시민에게 있어 새로운 희망

던 1970년대 일본은 황폐해가는 공업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에 눈을 돌렸다. 일본은 '축제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도시마다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갖고 있다. 저마다 독특한 색깔과 역사를 지닌 일본의 축제는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 일본경제를 부흥시킨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1950년대 조그만 마을주민들로부터 출발한 삿포로시의 '눈축제'는 이미 세계 4대 계절축제의 반열에 올랐다. 매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도시시 이마지는 세계인의 가슴에 투영됐고, 외국투자를 끌고 오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 요 문화전당 첫삽, 광주의 꿈 펼치자

이자, 보랏빛 꿈이 영글수 있는 기회였다. 급기야 광주의 성장동력을 담당했던 구 전남도청 일대의 건물들이 하나 둘 철거되면서 이제 역사의 한 컷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문화도시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시공(時空)이자, 그 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문화도시는 아시아 예술가들의 실험, 창작, 연구 및 교육, 교류를 제공 하는 발전소로 기능하며 나아가 세계 문화예술의 지평을 새롭게 바꾸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곧 문화도시 안에서 광주·전남의 유구한 문화는 아시아의 문화들과 융합되면서 세계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산, 광주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경제도시로 밀어올리는 추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에서 탈산업화 시대가 도래하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6월 10일 역사적인 첫삽을 친다. 광주가 삿포로보다 뒤질 것은 하나도 없다. 광주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역량은 삿포로가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와 견줘도 뒤질 바 아니다. 그러나 광주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100번째 삽질은 첫삽이 없고는 불가능하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가능한 각계의 전문가는 물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수렴해 나누 한 그루, 벚꽃 하나도 허투루 안배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프트웨어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야, 광주는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향기나는 도시로 기억될 것이다. <조선대 인문과학대학 초빙교수>

# 비정규직 여성들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심각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이 심각하다. 대형 할인점에서 일하는 아내도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아내의 경우 직장상사가 직접 성적 농담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남자 직원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해도 될 말을 굳이 따로 불려 들어서만 하는 밀폐된 곳에서 업무를 필적해야 장시간 엄중한 얘기를 늘어놓는다고도 한다. 애

기도중 슬쩍슬쩍 성적인 얘기도 던진다.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다. 아내의 경우 직장상사가 직접 성적 농담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남자 직원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해도 될 말을 굳이 따로 불려 들어서만 하는 밀폐된 곳에서 업무를 필적해야 장시간 엄중한 얘기를 늘어놓는다고도 한다. 애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박홍근



도시 경쟁시대. 각각의 도시들은 그들의 브랜드를 갖기 위해 치열히 노력하고 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의 명소들은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 아니면 공원을 끼고 있다. 이는 인지성, 즉 잘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곳에 경쟁력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홍보하고 브랜드화 한다. 광주도 그럴만한 곳이 많이 있지만 광주시내를 흐르는 광주천과 그 주변은 기회와 장소 중 으뜸이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 광주천을 가로지르는 교량도 그중 하나다. 수년 전 몇 개의 교량이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더니, 현재도 다섯 개

교량 위를 지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선만 고려된 것처럼 보인다. 일방향 투시도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장의 시선은 어색한 듯모습만 보인다. 셋째, 감동이 있는가? 숫자가 많다고 감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많음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디자인과 섬세한 시공이 있어야 한다. 제작각의 형태에 서로 잘 닮았다고 얼굴만 내밀고 있는 그런 설치물, 거친 시공에 낫엔 인상이 찌푸러지고, 밤엔 주변 가로등·상가의 현란한 간판들과 전투하는 것처럼 요란하다. 광주천 교량에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뭔가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는

# 광주천에 명품브랜드를 입히자

의 교량이 또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를 피하고 있다. 그 이상함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광주천은 선이다. 천 옆을 지나는 도로도 선이다.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 또한 선의 연장기에 접이 아닌 전체의 기다란 흐름 속에서 교량 디자인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시설물은 나홀로 잘나서 혼자 있다. 이는 주변 건물과 전주·전선·가로등·신호등·난간·조경등을 고려하지, 이를 동시에 디자인 하여 함께 어울림이 있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둘째, 장소의 방향성을 고려했는가? 교량 위의 시설물은 일방향성이 아니라 3차원의 다방향성을 가진 작품이어야 한다. 천변도로를 지나면서, 하천변을 거닐면서, 주변의 건물에서--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물들은 단지

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수많은 결과물 중 명품브랜드가 되었다는 기억은 없다. 앞으로 시행되는 공공 시설물은 최소한 다음의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하나, 장소 및 작품 선정과정 중 기획 단계부터 검증된 외부전문가를 효과적으로 참여시키자. 둘, 하나라도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것을 만들자. 크거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과 마무리 수준을 높이자. 셋,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명품브랜드를 입혀 장소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하여 체험의 감동을 주고, 감동의 기억이 추억으로 남게 하고, 다시 찾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명품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내자. <건축사·2004년 12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칼럼'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 은행 365코너 터치스크린 기기 시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

저녁 늦게 돈을 찾기 위해 은행 365코너에 갔다. 그곳에 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이 한 분 있었다. 자동화기기가 4대 있었는데 그는 4대 앞을 모두 서성이다가 결국 돈을 찾지 못하고 나가셨다. 왜냐하면 그 4대의 기기 모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터치스크린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터치스크린 방식은 일반인에게는 편리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점자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현금인출기가 편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 기기에도 의무적으로 숫자를 누를 수 있는 일반 버튼을 병합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시각 장애인용 모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1만을 누르면 현금 인출, 2만 누르면 현금 입금, 3만 누르면 계좌이체... 이는 시각장애인의 권리이다. 은행들이 하루빨리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b>光 叻 日 報</b>		<b>The Kwangju Ilbo</b>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small>(대표 FAX 222-4918)</small>	시 회 2 부 2200-619 <small>&lt;F A X 227-0118&gt;</small>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small>&lt;F A X 222-8005&gt;</small>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동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small>&lt;F A X 227-9500&gt;</small>
정책부 2200-616	여론매점부 2200-628	경치국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체육팀 2200-628	사회2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